금강삼매경 개강안내





금강삼매경은 법화부에 속하는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삼매경을 통해 크게 여섯 가지 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본성이 형성된 원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은 심(心)의 바탕과 식(識)의 바탕이 서로 연(緣)해서 형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본성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심과 식의 바탕을 능연(能緣)하게 함으로써 본성을 인식한다 하셨습니다.

셋째는 본성을 인식한 이후에 어떻게 수행해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허공해탈, 금강해탈, 반야해탈로써 진여문에 들어가고 무작해탈, 무주해탈, 무원해탈로써 생멸심을 제도한다 하셨습니다.

넷째는 금강부동삼매와 대자비, 대지혜를 체득해서 등각도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의 적멸상(寂滅相)에 머물러서 적상(寂相)과 정상(靜相)을 균등하게 껴안고 있는 것이 금강삼매이며 그로써 여(如)를 이룬다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는 여여(如如)를 성취하기 위해 대자비와 대지혜를 갖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자비와 대지혜는 생멸심의 제도와 육념처관(六念處觀)을 통해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는 대사적(代謝的) 삶과 연기적(緣起的) 삶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사(代謝)란 각성으로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와 밝은성품을 관(觀)하고 지(止)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연기(緣起)란 정보화된 각성과 본성, 밝은성품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서 자기마음으로 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사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것을 실제실상(實際實相)이라 하셨고 연기적 삶을 사는 것을 허상(虛相)의 삶이라 하셨습니다.
중생은 본연(本緣)에서 시작된 연기로 생겨났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이루고 있는 의식, 감정, 의지는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연기의 결과로 생겨난 중생들에게 실제생명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금강삼매경을 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허상생명에서 벗어나서 실제생명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緣起)의 끝자락에 서있는 중생에게는 심(心)과 식(識)의 바탕이 본래부터 갖추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의도를 통해 심식의 바탕을 연(緣)하도록 하면 저절로 본성이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의지를 각성으로 전환시키고 심과 식을 여의지 않은 상태로 그 바탕만 연(緣)해 주면 그대로 여(如)를 이룬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능연법(能緣法)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능연을 이룬 다음에는 금강해탈로 본성을 돈독히 하고 여섯가지 식근을 인식한 다음에 심의 바탕과 연(緣)하도록 해줌으로써 본성의 적멸상을 드러낸다 하셨습니다. 적멸상을 인식하면 반야해탈도에 들어간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금강심지(金剛心智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심지에 들어간 존재를 아라한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삼매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여(如)를 성취한 아라한은 혜(慧)와 정(定)이 다름없는 행으로써 여여(如如)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삼매경 강의를 아래와 같이 개강합니다.

장 소	구기동 점다카페. 온라인 수강 가능(줌) 서울 종로구 진흥로 469-6, 지하1층
개강일시	2024년 1월 둘째주 금요일(12일) 오후 7시
강 사	구선 스님
강의 시간 및 기간	주1회 2시간, 1년
강의등록	010-9378-9291 (참고 : 한글전화번호 1636 한글명상원)
수 강 료	학기당 200만원 (한학기 6개월)